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경제생활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형하*^o

*^o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hhlee62}@kwu.ac.kr*^o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Economic Life of Immigrant Women

Hyoung-Ha Lee*^o

*^o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울이고, 경제생활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확박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키워드: 결혼이주여성(Immigrant Women), 경제생활(Economic Life),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I. 서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생활상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으로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가족과 본인의 삶의 질의 확보를 통해 건강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법적 지위상의 문제나, 수급과 비수급이라는 극단적인 기초생활과 관련한 생존의 문제 등을 양적연구를 통해 접근하거나, 사회경제활동의 제도적인 제약요인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울이고,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사회경제생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문헌연구

1.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실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주자녀의 경제적 특성을 아래와 같다(표 1. 참조). 주택 소유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200만원미만이 38.6%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21.5%나 되었다. 2009년 전국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 344만원과 비교할 때, 여성결혼이주자 가구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12.5%가 본인 가족의 소득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권을 남편이 소유하고 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표 1.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제적 특징

Table 1. Economic Characteristic of Immigrant women

구분	범주	명(%)
주택소유형 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39,690(33.7)
	배우자 부모 소유	24,457(20.8)
	전세 또는 월세	47,597(40.4)
	기타	5,944(5.1)
	계	117,689(100.0)
거주할 경	매우양호	11,091(9.4)
	양호	35,711(30.1)
	보통	50,757(42.8)
	열악	17,668(14.9)
	매우열악	3,246(2.7)
계	118,472(100.0)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미만	5,893(5.1)
	50-100만원미만	18,882(16.4)
	100-200만원미만	44,466(38.6)
	200-300만원미만	21,310(18.5)
	300-400만원미만	6,277(5.4)
	400-500만원미만	1,865(1.6)
	500만원이상	2,093(2.0)
	모르겠다	1,446(12.5)
계	115,233(100.0)	

2.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실태 선행연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 연구논문 65편에 대한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연구’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연구’가 18.5%, ‘한국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15.3%,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13.8%,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및 일반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10.8%순 이었다. 연구방법의 경우 계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 연구는 전체의 1/4정도로 조사되었다.[2]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내는 연구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실태조사에 나타난 객관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중심질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연구자는 사람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술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직관하고 해명하면서 현상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3]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경제생활의 의미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한국생활 중 경제생활의 본질에 좀 더 깊고 정확하게 다가서서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여 스스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체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3명으로,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5명, 40대 5명이었다. 출신국가는 일본 3명, 베트남 4명, 중국 2명, 태국 2명, 필리핀 2명이었다. 한국에 결혼이주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4년이었다. 현재 직업은 주부 7명, 영어강사 2명, 문화해설사 1명, 다문화지도사 1명, 통역사 1명, 초등학교 청소일 1명이었다. 경제상태는 상 1명, 중 3명, 하 8명, 무응답 1명이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담센터의 상담실, 식당의 조용한 주인방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회에 70분에서 100분 정도 걸렸으며, 면담횟수는 1회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체 분석과정은 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주제분석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원 자료를 연구자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팍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지리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표 2. 참조).

표 2.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경제생활에 대한 주제묶음
Table 2. The Subject Category of Economic life experienced by immigrant women

주제 묶음	중심 의미
팍팍한 삶	- 부족한 생활비, 카드빚 - 일과 아이돌봄의 어려움 - 남편은 생활비를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함 - 지출후 남은 돈이 없음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 남편의 나이들에 따른 소득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 포인트 활용 - 가계부, 영수증 모음 -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 - 덤으로 주라고 요구함 -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큼
일지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 안정적인 일자리 원함 - 교육으로 끝나고 일자리 연결이 안됨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를 기대	-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 노후준비가 어려워 본국에서 노후생활 희망

1-1. 팍팍한 삶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은 생활비의 부족과 경제권을 시부모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팍팍한 삶이었다.

“저는 남편이 카드 사용하면 가끔은 싸우고 그래요 저는 진짜 카드 쓰는 거 진짜 싫어서.. 맨날 그랬어. 당신은 수수료 얼마 얼마 사용하면 이자 그게 있잖아요 일 얼마나 힘든데 그거 생각안하고 저는 진짜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이 속상하죠 속상도 하고 가족일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지. 근데 거의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한테 먼저 드려 줘야요 부모님과 결정을 하잖아요 생활비는 얼마. 이렇게...”

1-2. 자녀 교육비, 보험료 걱정

한국의 정주민도 자녀 교육비에 대해 걱정하고,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을 위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를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저는 돈 벌지만 돈이 없어요 제가 다하잖아요. 제 걱정은 학교 학원비. 지금 3학년인데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하러 다녀야 되고,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교육비 때문에 거의 바다. 그리고 보험.”

1-3.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결혼이주여성들은 팍팍한 현실의 경제여건에 대처하는 다양한 적응기제를 통해 생존전략을 펼쳐나갔다. 즉, 시장에서 국산과 중국산에 대한 구별을 통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포인트를 활용하여 가게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열의를 나타냈다.

“저는 한국사람 물어보는 것이라 똑같아요 얼마예요? 죄송하시지만 중국산 이에요? 한국산 이에요? 물어보니까 성질내는 것 이에요 (중략) 이것이 한국산이면 한국산이라고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표시해야되요.”

“돈 없이 포인트로 물건 가져와요 시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아야 간장 사라. 알았어요 하나로 마트 가서 포인트로 간장 두 개 사왔어요 포인트로 사용 할 수 있어요”

1-4.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결혼이주여성들은 가계경제의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자 자립적인 삶의 기초는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었다. 또한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관련 교육과정은 실제 취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자활에서 언제 그만하러 할 때 까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난 일 안 써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과외라도 몇 명씩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인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한테 보통 공장에 가니까 바쁠 때는 아 이렇게 바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바쁘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생활 보장이 없는거예요”

1-5.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화귀를 기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넉넉하지 못한 현실적 여건과 시댁식

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친정에 대한 지원은 머지 않아 다가올 준비되지 않은 남편의 노후생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남편의 생활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걱정과 맞물려 출신국으로의 화귀를 꿈꾸기도 하였다.

“근데 친척들은 부모님 잔소리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돈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외국여자가 돈 모국에 많이 보낼까봐 이렇게 해라 해라 간섭을 하는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보내면 30만원 보내요 돈 있으면 보내고, 돈 없으면 보내지 말라고 해요. 우리엄마는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농사하잖아.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남편은)살다보면 통할꺼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아이가 엄마아빠를 따라가고 싶으면 가서 00국 가서도 취직하고 뭐 그렇게요”

2. 해석학적 글쓰기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은 ‘팍팍한 현실을 적응해 나가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였다. 자녀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힘들음 대처하기 위해 출신국에서 남편과 함께 노후를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주제를 통합하여 1인칭 화자를 통해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다.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다. “옷 이런거 옷 이쁘잖아요. 가격 10만원. 사고 싶은데 가끔씩.. 옷 이쁘다. 가격보고 와 10만원이다. 사고 싶은데 나중에 사야지. 지나가면 돈 없어요. 마음 속에만. 돈 없다가 월급 나오면 다른 것 하느라 돈 없잖아요. 다음에 꼭 가야지. 지금까지 안 샀어요.” 이런 팍팍한 경제적 현실에 남편은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냐며 화를 낸다. “왜냐면은 우리 남편이 가끔씩 술을 드실 때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모와 뒀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영수증 붙였어요. 남편이 달라고 하면 영수증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살림을 하고자 노력했다. “가게부요? 그거 지도 해요. 왜냐면 돈 나가면 10만원 20만원 금방 금방 나가잖아요. 교육비, 생활비...” 그럼에도 나의 이러한 현실은 남편의 나이듦에 따라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결혼 전 친정식구가 있는 나라고 가고 싶다. “우리가 아이가 일단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00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이 아빠와 저만요. 둘이 00국으로 가서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아도 물가가 안높으니까.”

V. 결론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를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의미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확박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실의 확박한 삶에 그저 수동적으로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획’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편과의 나이차이는 가정 내의 경제생활의 중대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적합직종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경제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칭) ‘부부합산’ 제도의 적용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I. S. Yang, M. S. Min and S. H. Kim.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heir Employment Polici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2] J. H. Choi.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Multi-cultural Family: published between 2005 and 2010," Secondary Education and Research. Vol. 22, pp. 79-97, 2010.
- [3] K. R. Shin, "Criteria for Critique of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2. pp. 497-506. 1996.